

“호남은 단순한 고향 아닌 평생의 인연” | 최순모 재경 호남향우회장

“호남은 단순한 출신 지역이 아닙니다. 서로의 애경사를 챙기고, 힘들 때 손을 내밀며, 고향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뛰며 평생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전주를 찾은 최순모 전국호남향우총연합회회장을 지난 7월 10일 저녁 만나 기자회견의 인터뷰 첫마디부터 ‘사랑’을 이야기했다.

1957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그는 대구로 이주하여 대구·경북에서 25년 넘게 생활하며 호남 출향민들과 함께했고, 현재는 전국의 호남향우회를 아우르는 전국호남향우총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올해로 회장 취임 2년 6개월째다.

최 회장은 자신이 맡고 있는 조직을 “전국에 흩어져 사는 호남인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다리”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성남호남향우회에는 보성 출신도 고흥 출신도 익산 출신도 함께 활동한다. 매달 월례회를 열고 장학사업과 고향 방문 행사, 고향사랑기부금 조성 등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최 회장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과는 흩어져 있던 호남향우회 3개 전국 단체를 하나로 통합한 일이다. 현재 총연합회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등 전국의 호남향우회가 소속돼 있다. 정기총회에는 많게는 3만 명, 적게는 1만~1만 5천 명이 모인다. 각 지역 행사 때는 수십 대의 버스가 움직일 정도로 조직력이 크다.

최 회장은 특히 향우회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품앗이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향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전국 향우들이 대규모로 고향을 찾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전국호남향우총연합회 정기총회는 그의 리더십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 있었다. 약 2만 명이 모인 행사

에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대통령 축하 메시지도 전달됐다. 그는 “호남향우회 역사상 대통령실(현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저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1,300만 호남 출향민의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에는 요식업 체인점을 운영했고, 최근에는 GTRP(유리섬유보강플라스틱) 철근을 공기업에 납품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사업보다 향우회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주변의 평가에 웃으며 말했다.

대구호남향우회 평화원으로 시작해 35년 넘게 변함없이 향우회 활동을 이어온 그는 이제 후배 세대의 참여를 전국호남향우총연합회의 가장 큰 과제로 꼽는다.

그는 “향우회가 과거의 모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들어오고 디지털로 소통하고, 장학과 봉사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저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 그는 자신의 고향 군산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군산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살다가 이제는 서울에서 활동하지만, 결국 마음은 늘 호남에 있다. 고향은 멀리 있어도 잊히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전국을 누비며 수많은 향우들을 만나고 있다. 애경사를 챙기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고향 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수고다.

누군가는 “향우회장은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자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최 회장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제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는 순간까지 그는 “더 열심히 해서 향우들로부터 그간 받은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동안 이런 저런 사유로 호남을 떠날 수밖에 없던 수많은 출향민이 전국 각지의 도시의 삶에 적응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잊히기 쉬운 이름과 인연을 다시 불러내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 온 최순모 회장은 진정한 대장부 호남인이다.

그가 35년 동안 붙잡아 온 것은 거대한 조직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호남이라는 한 고향 사람’이라는 따뜻한 믿음을 하나로 전국호남향우총연합회를 하나가 되도록 만들고 열심히 이끌어 왔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진 호남향우인의 마음은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01만호 기자



완주군청 여자레슬링팀, 전국대회서 금메달

완주군청 여자 레슬링 선수단이 전국 대회에서 출전 선수 전원이 금메달을 목에 걸며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제57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학 레슬링대회에서 오정빈(여자자유형 53kg급), 이한빛(여자자유형 65kg급), 이지선(여자자유형 68kg급), 정서연(여자자유형 76kg급) 선수가 각각 체급별 정상에 오르며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뛰어난 리더십으로 팀을 이끈 정환기 감독이 지도자상을 받았으며, 탁월한 기량을 선보인 이한빛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에 선정되는 결경사를 맞았다. /완주=염재복 기자



장수군 장애인탁구선수단, 국제대회 銅2개 획득

장수군은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탁구선수단이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태국 나콘라차시마에서 열린 ‘2026 나콘라차시마 엘리트 장애인 탁구 국제대회’에 출전해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소속 대한민국 국가대표 황인준 선수는 남자 7체급 개인단식에 출전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치열한 경기를 펼친 끝에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장수군장애인탁구협회 소속 백영복 선수도 3체급 혼합복식에서 파트너와 안정적인 호흡과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동메달을 추가해 장수군 장애인체육의 저력을 국제무대에 알렸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 왕정동, 폭염 대비 노인복지시설 현장점검

남원시 왕정동(동장 김민주)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에 이어 8월에도(3~7일) 관내 경로당 18개소를 방문하는 현장 점검과 안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극한 폭염에 선제 대응하고,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왕정동 정족추어탕, 사매면 어르신 여름나기 응원

남원시 사매면 행정복지센터는 남원시 왕정동 정족추어탕(대표 이강만)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레토르트 추어탕 330개(시가 3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추어탕은 사매면 20개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으로, 최근 식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부식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한 끼 식사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남원의 대표 추어탕 맛으로 관광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정족추어탕은 평소에도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책 읽는 즐거움과 하나되는 화합의 장’

전주시, 2026 지역아동센터의 날 개최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회장 김남희)는 4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종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역아동센터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준비한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 및 시상식 △2부 독서퀴즈대회 △3부 명랑운동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1부 시상식에서는 독서대회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동과 종사자 40명에 대한 상장이 수여됐다.

이어 2부에서는 독서퀴즈대회를 통해 독서왕을 선발하고, 우등 트로피 수여했다.

마지막 3부 명랑운동회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게임을 함께 즐기고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화합을 다지기도 했다.

김남희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웃고 즐기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의 최우선에서 애쓰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전주시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70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1,800여명의 아동들에게 방과후 돌봄 및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01만호 기자

피서객을 위한 ‘제2회 선유도 힐링문화예술콘서트’ 성료

군산시민과 피서객을 위한 ‘제2회 선유도 힐링문화예술콘서트’가 지난 1일 선유도 해수욕장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및 군산시 지부가 주최하고 전북도내 스포츠 과정 원우회와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이 주관했다. 서광수출포장, 성운무브먼트, 한솔종합중기, 백송화관, 서천군 한우협회, 은성음향이벤트, 군산시 해병 전우회가 특별 후원에 나섰다.

행사에서는 김양욱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회장을 비롯해, 윤세춘 군산대 원우회 자문위원, 손명엽 서광수출포장 대표이사, 이호기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이사, 강정원·유태성·이민재 진행위원장과 김병호 홍보위원장 등 임원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 공연, 뭍놀이, 행운권 추첨 등으로 구성됐다.

폭염 대응… 남부시장변영회, 얼음 생수 나눔

전주시는 4일 여름철 더위가 가장 극심해지는 8월을 맞아 남부시장변영회와 함께 폭염에 대비한 얼음 생수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상인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시와 상인회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에게 얼음 생수를 나눠주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폭염 행동 요령과 온열질환 예방 수칙 등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폭염 예방 홍보를 전개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남부시장변영회와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오귀성 남부시장변영회장은 “폭염에도 남부시장을 찾아주시는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시장 주변 예찰 활동을 강화해 상인들의 안전을 챙기고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1만호 기자



함께 진행된 행사 공로 감사장 수여식에서는 손명엽 서광수출포장 대표, 윤세춘 군산대 원우회 자문위원, 정미영 원광대 원우회 부회장이 감사장을 수상받았다.

/김재훈 기자



인사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김인 개발전략국 부자유치과장